

독일베르크분트 가구의 특성분석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Furniture in Deutsche Werkbund

조 숙 경

독일베르크분트 가구의 특성분석

조 숙 경*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Furniture in Deutsche Werkbund

Sook-Kyung Cho*

목 차

- | | |
|----------------|-------------|
| 1. 서론 | 3. 가구의 특성 |
| 1-1 연구목적 | 3-1 기능적인 측면 |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3-2 형태적인 측면 |
| 2. 독일베르크분트의 결성 | 4. 결론 |
| 2-1 시대적 배경 | 5. 참고문헌 |
| 2-2 활동 및 영향 | |

ABSTRACT

Deutsche Werkbund, founded in 1907 and closed by Nazis in 1934, is affected on German economic growth and industry. The purpose of the association was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materials as emphasiz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artists and industrialists. The group is developed within the contrast idea of Hermann Muthesius who wanted the standardization of industries and of Henry van der Velde who wanted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based on individualism.

The furniture of DWB in terms of function exemplifies remarkable structures compare to furniture existed ever before. The use of such functional elements as shelves, casters and drawers in rectangular forms is notable. And the form make it possible to utilize in small spaces. Thus, the furniture of DWB represents such standards in industrial design as simple, abstract and geometric forms without any ornamentation.

Keyword: Deutsche Werkbund, furniture,

*서일대학 생활가구디자인과 전임강사, Departmen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College, Seoul, Korea, 131-702

1. 서론

1-1 연구목적

독일베르크분트(DWB)는 1907년 독일의 뮌헨에서 결성된 협회로써 1934년 나찌에 의해 해체되었다. 예술가와 사업가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산업화로 인해 대량생산되어진 공업생산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베르크분트는 제품의 표준화를 주장하는 무테지우스와 예술의 자유에 입각한 개체주의를 주장했던 반데 벨데의 대립된 양상 속에서 발전하였다. 베르크분트는 근대적 통일국가의 형성이 늦어지면서 유럽에서 다소 뒤쳐지고 있었던 당시의 독일 산업과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바우하우스로 이어지는 독일디자인의 역사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더니즘운동의 기초를 만들었다. 따라서 베르크분트의 가구는 독일의 가구디자인 역사는 물론 유럽의 가구디자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베르크분트의 가구를 조사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이후의 가구디자인역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독일 근대 가구디자인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1907년 독일베르크분트가 결성된 시대적배경과 결성목적, 활동 그리고 후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베르크분트 가구분석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결성시점부터 나찌에 의해 해체되는 1934년까지의 가구들을 중심으로 그 재료와 형태 그리고 기능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된 전문서적과 디자인잡지 그리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박물관 자료들을 조사하여 가구를 기능별, 형태별로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2. 독일베르크분트의 결성

2-1 시대적 배경

독일베르크분트의 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비엔나 공예제작소의 미술·공예운동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대량생산된 공산품들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공예운동이 영국의 러스킨과 윌리엄모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기계로 찍어낸 듯한 생산품들이 아닌 수공예적인 제품들을 중시하고 그에 따른 노동을 가치 있게 평가했던 미술·공예운동은 독일베르크분트의 결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즉 산업혁명에 의해 나타나는 단점에 반대하여 일어났다는 점이 미술·공예운동과의 공통점이며, 모리스가 수공예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했던 반면 그것에 반대하여 기계화를 적극 장려한 점이 다르다.

두 번째로 1903년 J. 호프만과 K. 모저 등이 오스트리아 빈에 설립한 비엔나 공예제작소(Wiener Werkstätte)의 미술·공예운동이다. 아르누보처럼 지나치게 장식은 하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강조하여 기능과 실용성을 디자인의 원리로 삼았다.¹⁾ 합리주의를 기본으로 생활속에서의 예술품을 창조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빈공방은 1933년 새로운 모더니즘운동의 대두로 인하여 그 역할과 필요성이 저하되면서 폐쇄되었다. 독일베르크분트는 생활속의 제품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빈공방의 영향을 받았으며, 가구들의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는 빈공방의 합리주의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베르크분트가 대중적이었던 것에 반해 빈공방은 귀족적으로 끝난 것이 다른 점이다.

1906년에 열린 제3의 독일공예전에 관하여 무테지우스는 1907년 봄에 베를린대학에서 “공예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

1) 정시화, 산업디자인150년, 미진사, 1998, p87

며, 이것에 대하여 공예경영보호협회의 항의를 받게 된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공예는 즉물적인 것을 형성하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였다.²⁾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07년 무테지우스의 발의로 미술가, 건축가, 사업가 그리고 미술애호가 등 100여명의 유명인사들이 모여 독일베르크분트를 결성하게 된다. 여기에 12명의 예술가-페터 베렌스(Peter Behrens), 테오더 피셔(Theodor Fischer), 요세프 호프만(Josef Hoffmann), 빌헬름 크레이스(Wilhelm Kreis), 막스 라에우거(Max Laeuger), 아델베르트 니메이얼(Adelbert Niemeyer), 요세프 마리아 올브리히(Josep Maria Olbrich), 브루노 파울(Bruno Paul), 리하르트 리멜슈미트(Richard Riemerschmid), 샤르보겔(J.J. Scharvogel), 파울 슐체-나움부르크(Paul Schitze-Naumburg), 프리츠 슈마허(Fritz Schmacher)-와 12개의 회사가 창립멤버로 활동하게 된다.

2-2 활동 및 영향

2-2-1 결성목적 및 활동

지나친 물질주의와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의 목적은 미술가와 생산자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독일의 미술과 산업 그리고 공예를 개혁하기 위함이었다.

연감발행과 전시회로 널리 알려지게 된 베르크분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는 헤르만 무테지우스³⁾와 앙리 반 데 벨데⁴⁾

2) 이건호 편저, 디자인 통론, 유림문화사, 1998. p271

3) Herman Muthesius: 1861-1927. 독일태생. 베를린공대 건축전공 졸업. 건축가로서 영국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관해 연구함. 집단주의적·즉물적인 사고방식이 그의 조형관의 중심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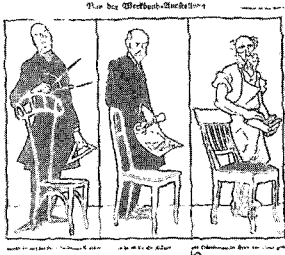
Karl Mang, Geschichte des modernen Möbels, HATJE, 1989, Deutschland Stuttgart, p88

4) H. Van de Velde: 1863-1957. 무테지우스의 규격화에 반대하여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조활동에 입각한 개체주의를 주장함. Karl Mang, Geschichte des modernen Möbels, HATJE, 1989, Deutschland Stuttgart, p84

로 창립 초기에서 중반까지는 규격화를 주장했던 무테지우스가, 후반에 들어서는 자유로운 예술활동의 개체주의를 내세웠던 벨데의 우세한 활동이 두드러진다. 두 사람의 대립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베르크분트의 이념논쟁이 밖으로 표출된 것은 1914년 쾰른 협회전에 있었던 총회였다. <그림1>은 전시회에 출품했던 아놀드의 만화로 예술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베르크분트의 역사 및 활동은 아래 [표1]로 정리될 수 있다.

[표1] DWB의 역사

연도	내용	장소
1907	베르크분트 결성	뮌헨
1910	“독일의 공간예술과 공예”라는 주제로 국제전시회에 참가	브뤼셀
1912	전시회, 회원수: 971명	오스트리아 빈의 산업미술박물관
1914	산업적인 조형 전시회 및 총회: 무테지우스가 표준화를 강조한데 비해 벨데는 미술가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창조 작업을 강조하여 이념논쟁과 내분이 일어남. 회원수: 1,870명	쾰른
1916	“상품카타로그” 출판함	쾰른
1924	산업적인 조형 전시회	베를린
1926	잡지“형(Die Form)”을 1934년까지 발행함.	
1927	산업적인 조형 전시회	수투트가르트
1929	산업적인 조형 전시회	브레스라우
1934	나찌에 의해 중단됨	
1949	8개 지방연합이 새로 결성됨	
1952	잡지 “공작과 시간(Werk und Zeit)”발행	
1972	독일베르크분트의 기록실 창립	마틴 그로피우스건물



<그림1> 칼 아놀드(Karl Arnold), 쾰른, 1914

1934년에 나찌에 의해 중단되었던 베르크분트는 1949년 8개의 지방연합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며, 현재까지 각 지방은 물론 독일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학생 또는 신인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각종 공모전과 장학금제도 그리고 산학협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2-2 영향

독일베르크분트는 독일의 예술은 물론 산업과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더니즘 디자인운동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09년에는 독일베르크분트에 자극을 받아 스웨덴디자인협회가 스톡홀름에서 산업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1912년 빈에서 개최한 독일베르크분트 전시회는 오스트리아 베르크분트 설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같은 해 미국의 뉴욕미술관에서도 작품전시가 열리게 된다.

셋째, 1915년에는 영국의 DIA(영국의 베르크분트)가 200명의 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디자인을 진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넷째, 1919년 그로피우스를 교장으로 독일 바이마르에 바우하우스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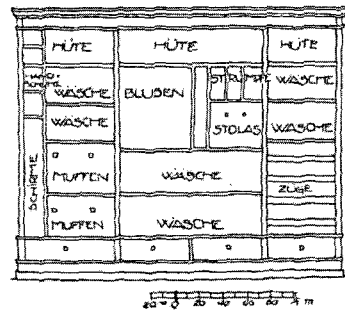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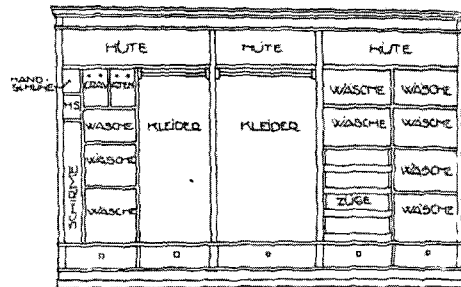
3. 가구의 특성

3-1 기능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첫

째,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도 효율성이 있는지 둘째, 쓰임새에 따른 재료선택이 적절한지에 중심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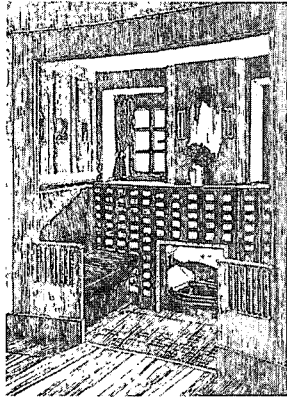
현대의 옷장구조 형성에 기초를 제공한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위 그림의 옷장에서 여러 칸을 나누어 맨 위엔 모자(HÜTE)를 두고 왼쪽에는 장갑, 넥타이, 우산 그리고 속옷(WÄSCHE)을 두며, 중앙에는 겉옷(KLEIDER), 오른쪽에는 다시 속옷을 배치하였다. 그 아래 속옷 장에는 맨 위에 모자를 두고, 왼쪽에는 장갑, 우산, 토시(MUFFEN)를 가운데는 블라우스(BLUSEN)와 속옷을 오른쪽에는 양말(STRUMPFE), 미사 때 걸치는 영대(STOLAS)와 속옷 그리고 통풍구(ZÜGE)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박스형태의 짜임새 있는 구조는 물건을 쉽고 편리하게 정리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림2> 무테지우스: 침실 또는 화장실의 옷장과 빨래장 스킷치-Wie baue ich mein Haus(어떻게 내 집을 지을까)-라는 책에서 발췌)

아래의 <그림3>은 영국의 합리적 주택건축에 영향을 받은 무테지우스의 스캐치로 낮은 천정과 벽난로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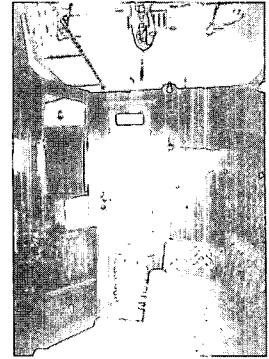
에 놓여진 벤취는 아돌프 루스6)가 자주 사용했던 요소이기도 하다. 벤취와 난로가 있는 공간을 다른 거실 공간과 구분시켜 정리하고, 벽난로에서 나오는 열기의 확산을 차단시켜주는 칸막이 등 사각형구조의 치밀한 공간분할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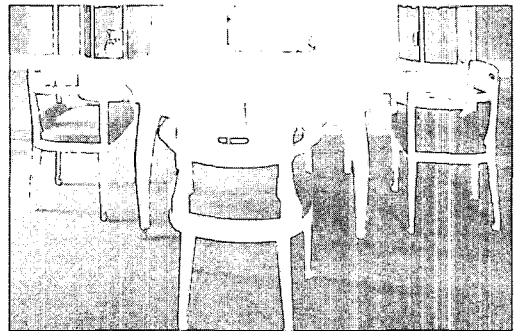
<그림 3> 벽란로가 있는 거실, Wie baue ich mein Haus(어떻게 내 집을 지을까)-라는 책에서 발취, 1917

다음은 1914년 독일베르크분트 쾰른전시회에 소개되었던 발터 그로피우스7)의 침대차 인테리어<그림4>는 이미 산업디자인이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침대역할을 병행한 소파, 거울이 부착된 수납장 겸 화장대 그리고 천정 밑에 달린 수납 선반 등 개인의 폐쇄된 작은 공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구를 효율적으로 배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4> 그로피우스의 침대차 인테리어, 1914



<그림5>는 벨데가 디자인한 식당의 가구들로 기능에 충실한 날씬하고 경쾌한 형태를 띠고 있다. 목재 부분은 흰색으로 도장하고 의자의 좌판만 빨간색 쿠션으로 만들어졌으며, 의자의 다리 끝은 마치 식탁의 다리같이 바퀴가 있는 것처럼 둥글게 처리한 뒤 앞부분에 금속 철을 하였다. 식탁은 양쪽으로 벌려져 상판을 넓힐 수 있으며, 이를 용이하도록 네개의 다리에 바퀴를 단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벨데: 식당가구, 튀링겐, 1908

5) 무테지우스, Wie baue ich mein Haus, F. Bruckmann, München,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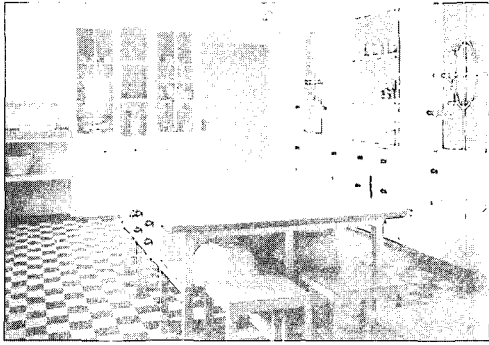
6) Adolf Loos(1870-1933):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독일 드레스덴 기술대학 졸업, 장식을 범죄라 칭하고 부정하였으며 독일베르크분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함. Karl Mang, Geschichte des modernen Möbels, HATJE, 1989, Deutschland Stuttgart, p83

7) Walter Gropius: 1883년 베를린 출생. 1903-1907년까지 뮌헨과 베를린에서 건축을 전공함. 이후 페터 베렌스사무실에서 근무함. 1919년 독일 바이마르 바우하우스의 교장으로 추대 됨.

Sembach · Leuthäuser · Gössel, Möbeldesign, Taschen, 1993, Deutschland Köln, p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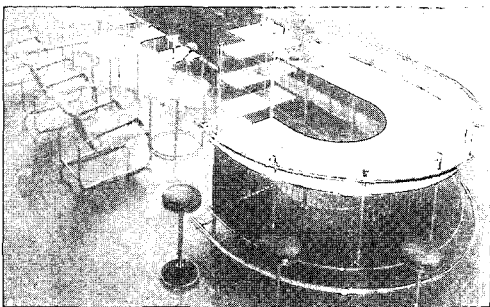
<그림6>은 요세프 호프만(Josef Hoffmann)이 브뤼셀에 있는 슈토클레트(Stoclet)저택을 위한 부엌설계로 벽에는 청결을 위하여 타일을 붙였으며, 양쪽 벽면에 놓인 찬장은 각기 다른 식기들을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서랍과 장이 면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홀 가운데 놓인 사각형의 조리탁자는 상판 밑에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크고 작은 접시나 그릇을 두고,

서랍을 만들어 조리에 필요한 작은 기구들을 넣어두도록 설계되었다. 바닥은 벽의 타일과 같은 크기의 바둑판 모양으로 실내에 놓여진 가구들과 함께 사각형의 단순함을 일체화하고 있다.



<그림 6> 호프만의 부엌, 벨기에 브뤼셀, 1911

아래 <그림7>은 스포츠와 휴식 공간 그리고 독서실이 구비된 높은 건물의 도서관을 위한 휴게실에 놓여진 가구이다. 바 테이블과 스톨 그리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와 작은 테이블들은 모두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져 청결유지에 용이하고 공간이 넓어보이도록 하였다. 어디에도 장식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능성에 충실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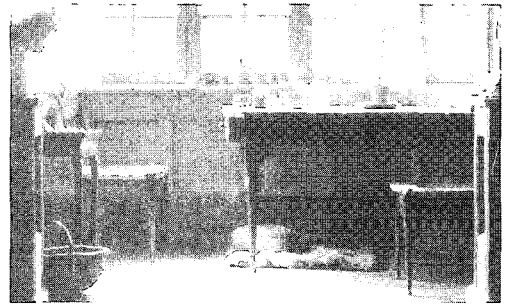
<그림 7> 그로피우스, 독일베르크분트 전시회 출품작, 파리, 1930

3-2 형태적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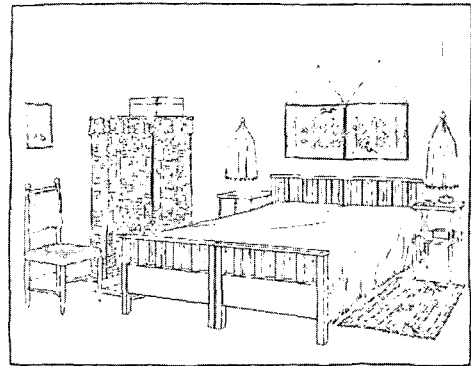
형태적인 측면의 분석기준은 기계 제작이

용이한 좌우대칭이나 직선적인 형태인지, 아니면 기계 제작이 어려운 자유곡선이나 장식에 있는지의 여부에 주요점을 두었다. 독일베르크분트의 가구들은 추상적이며, 장식 없는 기하학적인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아래 <그림8>은 리하르트 리멜슈미트⁸⁾가 설계한 거실 한 칸에 있는 가구들로 단순함이 특징이다. 넓은 상판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내려오는 다리는 유겐트스틸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나 소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서랍과 들어 옮길 수 있도록 손잡이가 고안된 의자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8> 리멜슈미트, 거실가구,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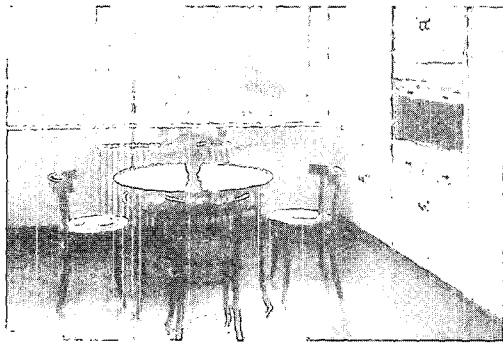
<그림 9> 하인리히 테세노우, 침실, 1908

<그림9>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시민노동자들의 침실 스캐치로 방 가운데는 직선적

8) Richard Riemerschmid: 1868-1957. 1897년 뮌헨의 수공업예술가를 위한 작업장연합의 공동설립자이며, 유겐트스틸 작가. Lydia L. Dewiel, Stühle & Sessel, HEYNE, 1999, Deutschland München, p184

인 1인용 침대 두 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다. 침대 머리판 양 옆에는 2층의 협탁이 놓여지는데 직선적인 선반과 곡선이 가미된 다리부분으로 되어있다. 침대 다리 쪽에는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좌판과 곡선이 가미된 다리 그리고 쿠션으로 마무리된 간결한 형태의 의자가 놓여져 있다. 이렇듯 실내 전체의 분위기는 단순한 형태의 가구로 인해 실용적이며 정결한 인상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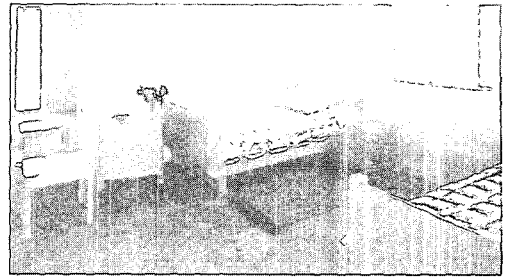
<그림10>은 1927년 수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베르크분트의 전시회에 출품했던 루드비히 힐버스아이머(Ludwig Hilberseimer)가 디자인한 식당이다. 오른쪽 벽면에 있는 조리과 수납공간은 일자로 놓여진 박스형으로 좁은 공간을 최대로 살렸다. 둥근 식탁과 의자는 최초의 대량생산가구를 만들어 낸 토네트의 곡목기술을 이용한 듯 가볍고 날렵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그림 10> 힐버스아이머, 수투트가르트,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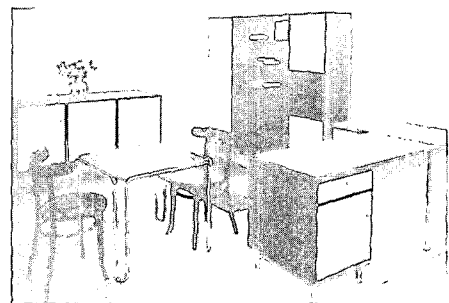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한스 포엘찌히⁹⁾가 1927년 수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베르크분트의 전시회에 선보였던 것으로 침실에 있는 가구이다. 심플하게 하나로 굽은 듯한 “C”자 모양의 침대가 특징이며 옆에 놓여진 협탁과 3층 서랍장은 단순한 박스형태를 띠고 있다. 왼쪽 벽에서 있는 전선기울과 그 앞의 탁자도 박스형태

이며 이 침실에 놓여진 모든 가구들은 침대와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휘어지며 돌아가는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11> 한스 포엘찌히, 수투트가르트, 1927

<그림12>은 1929년에서 1930년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그로피우스가 베를린에 있는 “저렴한 상점(Billig Kaufhaus)”을 위해 디자인한 것으로 1930년 파리에서 열린 독일베르크분트 전시회에 발표하기도 한다. 오른쪽의 높은 책장은 선반을 원하는 곳에 둘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만들어졌으며, 합판에 무늬목을 붙인 문짝을 달아 수납의 용도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그 앞의 책상은 자유롭게 배치가 되도록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의자와 같이 놓인 2인용 테이블은 금속판으로 되어진 틀에 유리를 올려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박스형태를 하고 있으며, 가구의 다리부분에 금속을 사용하여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12> 그로피우스, 베를린의 상점, 1929/30

9) Hans Poelzig: 1869년 베를린 태생. 살로텐부르크 기술전문대학 졸업. 1899년 내각의 정부건축사가 됨. Karl Mang, Geschichte des modernen Möbels, HATJE, 1989, Deutschland Stuttgart, p91

4. 결 론

독일의 산업과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독일베르크분트는 일반대중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독일 디자인의 특징을 형성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독일베르크분트 가구는 기능적인 면에서 그 이전의 사조들의 가구보다 구조성이 돋보인다. 가구의 기능에 최대한 충실한 구조로 바퀴나 서랍 그리고 선반들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좁은 공간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박스형태의 단순함을 보인다. 여기에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칩층곡목법과 합판, 스틸 그리고 유리가 사용되었다. 형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산업디자인의 보편적인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계 제작이 용이하도록 직선적이며 박스형태가 주류를 이루며, 단순·간결한 곡선도 나타나고 있다. 추상적이고 장식 없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무채색이나 원색의 순수한 색채가 사용되었다.

기능을 중시한 대량생산품이 소비자의 마음을 충족시켰던 모더니즘 시대가 지나고 현재는 소량 다품종의 시대로 가구산업 또한 주문 가구의 성행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는 디자인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밑에는 기능이라는 기본충족조건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더니즘디자인 운동의 기초를 27년 간 독일 뿐 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질 수 있게 한 베르크분트의 업적을 다시 평가함은 물론 그 가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독일 및 현대가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5. 참고문헌

1. 강현욱 역, Gert Selle저, 산업디자이너, 미크로, 1995
2. 김재은 편역, 디자인의 철학, 창지사, 1996
3. 박대순 역, 현대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1996
4. 이건호 편저, 디자인 통론, 유럽문화사, 1998
5. 정시화, 산업디자인150년, 미진사, 1998
6. 조숙경, 작가연구를 통한 유겐트스틸, 한국가구학회지 제15권 1호, 2004. 04
7. Edith Holm, stühle von der Antike bis zur Moderne, 1978, Deutschland München
8. Karl Mang, Geschichte des modernen Möbels, HATJE, 1989, Deutschland Stuttgart
9. Lydia L. Dewiel, Stühle & Sessel, HEYNE, 1999, Deutschland München
10. Museum fur Angewandte Kunst Köln, Möbel, 1989, Deutschland Köln
11. Sembach · Leuthäuser · Gössel, Möbel-design, Taschen, 1993, Deutschland Köln
12. Taschen, bauhaus, Taschen, 1993, Deutschland
13. <http://de.wikipedia.org>
14. www.deutscher-werkbund.de